

パク・セウンちゃん

저번에 시험 때문에 일본 동생들과 줌을 하지 못
해서 아쉬웠는데 이번에는 같이 줌을 할 수 있어서
좋았다. 또 두번째 시간때 링고노 링짱, 미강노 밍짱
이야기에 나왔던 캐릭터가 귀여웠다. 그리고 저번에
줌 할때는 한복집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일본 기모노
옷을 접어서 재미있었다. 또 궁금한 것을 묻고 답하는 것이
좋았다. 또 빨리 줌 하고 싶다.

この前は、バイオリンの試験のために日本の妹や弟たちとズームが
できなくてとても残念でしたが、今回は一緒にできてよかったです。

また、りんごのりんちゃんとみかんのみんちゃんの話に出たキャラク
ターがとっても可愛かったです。

そして、この前はチマチョゴリの折り紙をしましたが、今回は日本の
着物を折ることができて、とっても面白かったです。また、気になるこ
とを質問して答えることも楽しかったです。

また、早くズームで会いたいです。

パク・セウン